



[CES 2021] GM 배송용 전기트럭 공개 전동 적재-배달 05



Life

[라이프] 아마존 동맹·IPO 추진 11번가, 이커머스 주름잡는다



# 진전없는 미세먼지 감축, 中 등 국제 협력 플랫폼 필요

연평균 미세먼지 비슷하거나 증가 동북아 대기오염 90% 중국서 배출 플랫폼 구축·공동 지식 기반 형성 등 미세먼지 감소 위한 참여 유도해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지난 2010년 이후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큰 폭의 감소세 없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동북아시아 전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등과 힘을 모아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3~26µg/m³로 제자리걸음이고 고농도 일수도 증가했다.

연구진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관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0년 25µg/m³, 2011년 24µg/m³, 2012년 23µg/m³, 2013년 25µg/m³, 2014년 24µg/m³, 2015년 23µg/m³, 2016년 26µg/m³, 2017년 25µg/m³, 2018년 23µg/m³, 2019년 25µg/m³로 뚜렷한 감소세가 없었다. 게다가 '미세먼지 계절관

리제'가 시행된 작년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7µg/m³로 전년 연평균(25µg/m³)보다 1.7µg/m³ 증가했다.

초미세먼지가 주의보 이상의 고농도로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된 기간도 2015년 68시간에서 2019년 419시간으로 6.2배나 뛰었다. 특히 2019년 3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역대 최장인 7일 연속으로 발령되기

도 했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배출된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중국이 강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대기관리정책으로 2010년을 전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인접한 징진지(수도권), 장강 삼각주, 펀웨이 평원 등의 배출 감축률은 다른 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인창 부연구위원은 "기존 국제협력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감축정책 실행과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을 넘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4가지 전략으로 ▲국제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 ▲중국 지자체와 중점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서울시 보유 자원을 활용한 공동의 지식 기반 형성 ▲도시 리더십 강화를 제시했다.

국제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연구진은 공동의 목표 수립, 관리지표 선정, 협력의 원칙 정립, 중점 협력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국 지자체와는 대기오염물질 공동 저감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베이징과 서울은 자동차와 건물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사업을, 상하이(혹은 톈진)와 인천은 선박부문의 배출량 저감 사업을, 경기도와 허베이성은 산업과 발전부문 배출량 줄이기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식이다.

연구진은 "서울시가 기존 연구기관을 활용해 미세먼지의 발생과 영향, 장거리 이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연구 성과를 협력 대상 도시와 공유해야 한다"면서 "강한 리더십은 단순히 국제협력기구를 제안하거나 재원을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충고했다.

이어 "협력 대상 도시를 설득하고 의제를 설정,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체 발생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지원금 2500억'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찾는다

환경부-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특별지원금·수수료 50% 제공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후보지 찾기에 나섰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4월 14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 면적은 220만㎡ 이상, 실 매립면적은 170만㎡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2025년 운영이 종료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의 갑절이 넘는 규모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즉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은 공모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체매립지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예비처리시설(전처리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이 들어선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에 법정 지원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주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한다.

이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인근 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편성해 기초 지자체에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한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은 선정 이후 협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서울 건축공사장 불시단속... 141건 적발

330개소 중 총 139개소 위법 적발 3년간 공사장 화재 총 374건 발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작년 11~12월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1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33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9일 ~ 12월 24일 진행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전체 330곳 중 139개소에 대해 과태료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 총 14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은 ▲건축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 ▲위험물 저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모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으로 집계됐다.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이었다.

/김현정 기자

## 서해남북평화도로 첫삽... 영종-신도 잇는다

왕복 2차로·인도와 자전거도로 건설

영종~신도~강화~개성을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첫 삽을 뜬다. 인천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신도선착장에서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서해평화도로 영종~신도 구간은 길이 4.05km 폭 15.5m로 왕복 2차로와 인도 및 자전거도로가 함께 건설된다. 인

천 중구 운서동에서 옹진군 신도까지 연결되는 (가칭)신도대교는 약 2Km이며, 연결도로 구간은 약 2.1Km다.

시는 지난해 4월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 지난달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1단계 건설 시공사로 선정했다. 총 사업비는 1245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764억 원이다.

착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도면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도면 주민은 1185세대 2152명으로



서해남북평화도로 조감도. /인천시

배를 이용해 육지로 나갈 수 있었다. 신도대교가 개통되면 날씨에 관계없이 24시간 통행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생활 편의는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창근 기자 mirex@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6 | 해질 / 17:36

1월 14일 (목) 음력 : 12월 2일

수도권 날씨 -5 ~ -6°C

운중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인천 -10/6, 동두천 -9/6, 가평 -10/6, 파주 -10/6, 서울 -5/6, 양평 -8/7, 수원 -5/7, 용인 -5/7, 평택 -8/7, 백령도 -3/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